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3호 [주제 제 26117 호] 주제 107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어 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 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김정은각하

나는 귀국의 민족적명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귀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될 때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이율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계기에 수리아아랍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를 친선적인 두 나라 인민들의 라이과 봄리에 맞게 강화해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합니다.

각하께 가장 승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 바샤르알아сад

2018년 8월 28일

디마스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어 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적업적을

만대에 및내어 잘 일컬어 주고 출판지 도록

산하단위 부사장 세련주는 만수대언터에

높이 모신 수령님들의 통상유 정종히

보시는데 필요한 실비와 기체들을 기증

하였다.

정당사업총위원회 기자 윤경옥은 수십년

세월 하루와 같이 민주대언터에 올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유를 관리하는

사업에 온갖 짐을 다함으로써 정종의 가

품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날 이 갈 수록 더욱 강렬해 지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선

직십자종합병원 의사 박학진은 민주대언터

사제지를 더 훌륭히 꾸려는데 깊은 관심

을 바치면서 본신혁명파업수행에도 적극

헌신하고있다.

봉북지구상업중심 교통사로에 속, 보관

봉구역 북새동 23인민반 고정식도 지난

생활을 따뜻이 둘러싸는 훌륭한 소행을 발

20여년간 비가 오나 높이 오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유 찾아 주변관리사업에

성의를 다하여 대중의 존경을 달고있다.

중앙에 출신동사 부사장 허혜숙은 조선에

술영화촬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

의 통상유 더 옥 청중히 보시는 사업에

충성을 다하였으며 영예군인의 혁명의 꽃

을 계속 피워가도록 그의 건강과 생활을 구

진히 돌봐주었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응호고수하는

길에 청춘의 자족을 세계로 마을하고 인민

보안성 산하단위 보동자 안향심은 조선혁

명박판판을 대양조선의 대국보판으로 꾸려

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신의 주시에 역전 60인민 고정점,

선상통 55인 반 총순북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성적을 들어온 연대봉

사업에 출전한 항심을 바

쳐가고있다.

사회와 집단, 통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보

든것을 바치는 것을 혁명적도덕의리로 강

한 평양가장생산국 산하단위 사장 장세일

은 안해와 함께 오랜 기간 특류영에 군인의

생활을 따뜻이 둘러싸는 훌륭한 소행을 발

휘하였다.

리랑구역 정오소학교 교원 박진희, 원산

시내단학 학부장 천기훈은 뜨거운 인간애

를 지니고 특류영에 군인과 부모없는 체자

들을 친밀육의 정으로 보살펴 주어 사회주

의 가장에 미력의 향기를 더해주었다.

평양에 방어공장 도동사 강운실은 조국보

위초소에서 청춘을 끌내인 특류영에 군인을

위해 사심없는 진정을 바쳤으며 신의 주

관련 환경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

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문화에 술활동을 대중화할때 대한 당의

방침을 만들고 남포시 천리미구역 세거리

교고증학교 교원 김병숙, 회천시 배봉고교

중학교 교원 김병숙, 회천시 배봉고교

수석교관 박진희는 군인과 군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대로 동지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코나쁜 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군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세계에서 높이 우러러보시며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적극 헌신해갈 애국의에 넘

쳐가고있다.

사회와 집단, 통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보

든것을 바치는 것을 혁명적도덕의리로 강

한 평양가장생산국 산하단위 사장 장세일

은 안해와 함께 오랜 기간 특류영에 군인의

생활을 따뜻이 둘러싸는 훌륭한 소행을 발

본사기자

##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 전망이 좋은 새 탄발 개발

문천 탄광에 서

문천 탄광에서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기기 위한 투쟁을 향하게 되는 데서는 높은 새 탄발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전진경구역의 토암지구에 개발된 새 탄발은 수십년에 걸친 노력과 재로 개발됨으로써 탄광에서는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철학목표를 향해 끝난 투쟁한 터였다.

증산돌격 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워져 탄광지는 속에 이 목표에 헌신한 자들은 탄광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에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전진경구역의 새 탄발개발을 완료하는 데에는 청진 속도가 탄광에서 새 탄발개발을 할 때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에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 파악과 함께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에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탄광과 굴진을 앞세워 확보하고 대로 대체하는 데는 청진 속도가 탄광에서 새 탄발개발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에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분분히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과 굴진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에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 파악과 함께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에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탄광과 굴진을 앞세워 확보하고 대로 대체하는 데는 청진 속도가 탄광에서 새 탄발개발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에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분분히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과 굴진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에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 파악과 함께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에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탄광과 굴진을 앞세워 확보하고 대로 대체하는 데는 청진 속도가 탄광에서 새 탄발개발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에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분분히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과 굴진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에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 파악과 함께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에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탄광과 굴진을 앞세워 확보하고 대로 대체하는 데는 청진 속도가 탄광에서 새 탄발개발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에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분분히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과 굴진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을 대로 대체하고 새 탄발에 맞게 공사조직과 지휘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 무볼트고착장지생산에서 계속 혁신

철도 운수부문에서 철길 강도

양설비와 배후를 비롯한 많은 설비와 자재에 비를 찾았다.

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절

도를 밟아 깊은 기간에 필요한 설비들을 원상복구하였다.

란랑에서는 새로 개발된 혁신

기술을 통해 철길 강도를 높여주었다.

란랑에서는 새롭게 일군들이

모두 두루 끌어들여 철길 강도를 높여주었다.

란랑에서는 새롭게 일군들이

모두 두루 끌어들여 철길 강도를 높여주었다.

란랑에서는 새롭게 일군들이

모두 두루 끌어들여 철길 강도를 높여주었다.

란랑에서는 새롭게 일군들이

모두 두루 끌어들여 철길 강도를 높여주었다.

란랑에서는 새롭게 일군들이

모두 두루 끌어들여 철길 강도를 높여주었다.

란랑에서는 새롭게 일군들이

모두 두루 끌어들여 철길 강도를 높여주었다.

란랑에서는 새롭게 일군들이

모두 두루 끌어들여 철길 강도를 높여주었다.

란랑에서는 새롭게 일군들이

모두 두루

# 서정시 〈나의 조국〉과 함께 영생하는 값 높은 삶

김 일 성 상 계 관 인 이 며 조 국 통 일 상 수 상 자 인 작 가 김 상 오 선 생 이 받 아 안 은 고 귀 한 은 정

우리 공화국의 70년은 해방조국의 빈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숙구처로운 거창한 비약과 변혁으로, 빛나며 인민의 운명을 치적 주고 끊어주신 철사의 위인들의 열회같은 사랑의 역사로 만사람의 실금을 울린다.

창룡높이 휘날리는 맑은 새공화국기를 바라볼수록 위대한 조국에 대한 생각으로 더욱 가슴뜻듯해지는 오늘 우리 인민 누구에게나 뜨겁게 사랑하는 한편의 서정시가 있다.

『나의 조국』!

조용히 불리던 바도 복받치는 궁지와 행복감에 눈淚를 털지 하는 사랑하는 조국을 노래한 서정시가 터여난 때로부터 큰 40년이 된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수록 더욱 빛을 뿐만 아니라 꿈만 같다고 솔직한 설정을 그대로 말씀해왔다.

그때는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립 않아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시면서 자신의 절로 이끄러웠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계시던 신분을 내보이시며

수령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냈다.

김상오선생은 깊숙이 헌신해온 그 신문은 『자유황태』였는데 거기에 신민 사설은 그가 해방직후 나라의 정치체제와 당시의 로선에 대하여 쓴 글을 세면에 걸쳐 펼쳐놓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편 웃음을

지으시고 『사설을 아주 잘 분석하여 썼습니다. ... 상은 내가 못

보고 좋, 하빈 일어보았는데 정치적으로 끝까지 분석판단하고 방향도

놓고 설정하며 끝 썼습니다.』라고

파악한 평가를 주시었다. 그의 인

상은 새 조국건설에서 한동안 단

단히 훈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재능있는

분필가를 주필 풍부한 기획을 달고

평양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오전 시

간 김상오선생에게 조성된 정세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고 해주시기

의 문언지도 풀해주시고 가족들도

모든 것을 단답하였던 데에 기술되는

소식에 접하였으니 김상오선생의

설정이 어려웠으리라.

당중앙위원회의 어느 한 방에 들어선 김상오선생에게 일군이 한 말은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봄동물

찾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는 봄동물과 곤충들이 예보에

걸며 그사가 정치적 생명까지 끝나고

시련을 겪은 것을 아시고 못내 가슴

속으로 이렇게 부르고 또 불렀다.

그것은 창원 삶의 물결을 살피는 법이다.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어서 그는

미처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임당년 월 1945년...』이라고

새겨진 저기의 당원증을 받아들고서

야 어제부터 조국을 겨우 놓아온

것을 떠나온 수령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도록 하실것이었다.

해방된 강산에 새 생활이 악동하

면 주제 35(1946)년 1월 11일이었다.

김상오선생은 자기의 수기 『청춘의 삶을 알기 위한 사랑』에 이런 글

을 남기었다.

『나의 조국』은 비록 작아 한 시민의 일생과 축복과 같은 것을 나는 서정시 『나의 조국』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었다.』

무릇 시는 체험과 열정의 삶들이라고 하였다.

격정의 대하로 글이 치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로 젖어들기도 한 김상

오선생의 사연많은 인생행로의 흥

인 서정시 『나의 조국』, 그것은 그

대로 식민지노예로부터 가장 궁지

고 혼란을 주체조선의 인민으로

된 우리 인민모두의 구적인 체험의

웅정임이기도 하였다.

해방된 강산에 새 생활이 악동하

면 주제 35(1946)년 1월 11일이었다.

김상오선생은 천만포탄의 소식에

겁하게 되었다. 해주시를 헌지지도

하고 계시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시

황해도 당원회기판자 『자유황태』

의 주필사업을 맡아보았던 그를

목소로 보신것이었다. 김상오선생은

세한 홍분으로 하여 어떻게 위대한

수령님앞에까지 달려와 서게 되었는

지를 몰랐다.

수수한 나루의자에 앉으시며 신분

을 보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 주필들이 와꿔 와꿔 주기로

기다렸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날 저녁 도에서 마련한 연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

을 달고 서계하고는 신분을 기록하였다.

해설보임 출연자들은 짹 날을

굽어도 살아나갈수 있다는 신념

을 가진 사람, 단 하루의 땀짓기

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것,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은

아이들이는 사랑, 절에 고도에 흥

로 떨어져 이를 모아 출연에서

한점의 티끌도 사라져 조국을

자기 찾고 자기의 이름을 기

었다.

얼마전 초급당위원회의 지도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그 그를 만감에 맞아주시었다. 군도와의 전설적영광을 이처럼 풀가까이 펼개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김상오선생은 복당하는 감각에 활동 양률비를 물려하였다.

매 및 같은 미소, 영재로 이 및 나는 인광, 우량우량한 융성, 한없이 소탈하고 인자하신 성품...

온 민족이 송강하여 마지 않는 체제의 애국자, 민족의 명수를 우러르며 김상오선생은 장군님을 이렇게 뻬게 되니 꿈만 같다고 솔직한 설정을 그대로 말씀해왔다.

장구한 혁명의 길에 위대한 한수봉과 함께 헌신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길에 물려온 꿈과 함께 김상오선생의 손을 끌어당기는 듯한 영광도 지난 행운이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영적을 데려져 보살피심을 받아안는 남다른 영광도 지난 행운이었다.

죽어도 잊지 못할 그 시작 김상오

선생의 실장은 철새의 위인을 한생

토록 그리고 말리라는 불같은 행

세로 세계하고 고동하고 있다.

장구한 혁명의 길에 위대한 한수봉

과 함께 헌신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길에 물려온 꿈과 함께 김상오선생은

장군님의 영광도 지난 행운이었다.

그는 원래 어려서부터 문학은 불

른 미술과 음악에도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

긴 불우한 생활처지로 하여 『판과

풀이면 되는』 문학의 길을 밟았지만

그것은 식민지노예의 실을 만드는

데려주는 것이었다.

정명 무슨 일인가 끊지 않았으랴.

일제의 식민지교육을 떠나야 하

우들과 함께 동맹후학이 떨어져 있었던

일이며 민족영향의 신분증고체를

말이거나 되었는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큰욕을 치르면 일, 식민지청년의 배수를

쌓기로 활동에 달아 청년을

죽여지게 생활처지에 끌려들어온

것은 그의 철학과 철학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는 원래 어려서부터 문학은 불

른 미술과 음악에도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

긴 불우한 생활처지로 하여 『판과

풀이면 되는』 문학의 길을 밟았지만

그것은 식민지노예의 실을 만드는

데려주는 것이었다.

그는 원래 어려서부터 문학은 불

른 미술과 음악에도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

긴 불우한 생활처지로 하여 『판과

풀이면 되는』 문학의 길을 밟았지만

그것은 식민지노예의 실을 만드는

데려주는 것이었다.

그는 원래 어려서부터 문학은 불

른 미술과 음악에도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

긴 불우한 생활처지로 하여 『판과

풀이면 되는』 문학의 길을 밟았지만

그것은 식민지노예의 실을 만드는

데려주는 것이었다.

그는 원래 어려서부터 문학은 불

른 미술과 음악에도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

긴 불우한 생활처지로 하여 『판과

풀이면 되는』 문학의 길을 밟았지만

그것은 식민지노예의 실을 만드는

데려주는 것이었다.

그는 원래 어려서부터 문학은 불

른 미술과 음악에도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

긴 불우한 생활처지로 하여 『판과

풀이면 되는』 문학의 길을 밟았지만

그것은 식민지노예의 실을 만드는

데려주는 것이었다.

그는 원래 어려서부터 문학은 불

른 미술과 음악에도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혁명사적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혁명사적사업에 힘을 넣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를 깊이 빛내이고 당원들과 균도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정신으로 품은 푸창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장장군당위원회 사업이 주목된다.

위 대 행 병 도 자  
길 정 일 통 지 세 는 다 을  
같이 표시하였다.

『혁명사적사업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것 만큼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둘러주고 진행하여야 한다!』

세세한 임명되어온 영광스러운 당원장이 먼저 찾은 곳은 군 혁명사적교양실이었다.

당시 혁명사적교양실은 위대성교양, 혁명전통교양의 철학으로서의 면모와 원만히 갖추어져있지 못하였다.

군당위원회원회 군당책임원회원들은 혁명사적교양실을 새로 꾸리는 사업에 군당위원회원회를 군도자들을 발

동시켰다. 선진선동부의 일군들

이 해당 단위와 함께 군당책임원회

대간혁명전직자를 현지지도하

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사진

포인트를 더해 전시장을 확장

하였다.

군당위원회원회원들은 혁명

사적교양실의 면모를 빛내여

나군인의 혁명사적사업전반에

대한 호응을 실현시켜나갔다.

고대 산혁명전직자의 교양미당

등이 정성껏 있어서 나내 대중에

여 있어서 용당한 수준에 이르

지 못하였고 담사숙영소 역시

잘 꾸려져있지 못하였다. 혁명

## 혁명사적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장 진

군 당 위 원 회 에 서

친환경운동을 통해 혁명사적사업에 힘을 넣어온 군당위원회원회원들은 혁명사적교양실을 확장하고 혁명사적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혁명사적사업은 우리 당의 혁명정신으로 품은 푸창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장장군당위원회 사업이 주목된다.

위 대 행 병 도 자  
길 정 일 통 지 세 는 다 을  
같이 표시하였다.

『혁명사적사업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것 만큼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둘러주고 진행하여야 한다!』

세세한 임명되어온 영광스러운 당원장이 먼저 찾은 곳은 군 혁명사적교양실이었다.

당시 혁명사적교양실은 위대성교양, 혁명전통교양의 철학으로서의 면모와 원만히 갖추어져있지 못하였다.

군당위원회원회원들은 혁명사적교양실을 새로 꾸리는 사업에 군당위원회원회원들을 발

동시켰다. 선진선동부의 일군들

이 해당 단위와 함께 군당책임원회

대간혁명전직자를 현지지도하

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사진

포인트를 더해 전시장을 확장

하였다.

군당위원회원회원들은 혁명사적교양실의 면모를 빛내여 나군인의 혁명사적사업전반에

대한 호응을 실현시켜나갔다.

고대 산혁명전직자의 교양미당

등이 정성껏 있어서 나내 대중에

여 있어서 용당한 수준에 이르

지 못하였고 담사숙영소 역시

잘 꾸려져있지 못하였다. 혁명

## 청년동맹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어

각지 부문 당위원회와 당세포들에서

투두파 생신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도록 적극 고무해주었다.

당세포의 지도로 청년동맹초급단체가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된 결과 분분은

기 청년동맹원회는 그것을 및

몇 청년군이나 청년군들에

개인 및 청년군들에 대한 사업으로 높여보았다.

그러나 군당책임일군의 정침

은 확고하였다.

기성판에 매달리면서는 아무

들어나가도록 하였다.

당초금일군은 청년동맹초급단체에

비서들의 수준을 높여 주고 뒤에

어진 동맹체원회의 사업을

교류협력인원들로 자리매김

하였다.

증진군 풍랑정동봉동장 제9작

업반부문당위원회에서는 청년

동맹초급단체에 풍랑정동봉

연합회를 개최하였다.

당초금일군은 청년동맹초급단체에

비서들의 수준을 높여 주고 뒤에

어진 동맹체원회의 사업을

교류협력인원들로 자리매김

하였다.

경찰부지연과 함께 청년동맹

초급단체가 사상교양단체로

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년

교양의 저점인 청년학교를 꾸리

는 사업에 힘을 쏟았다.

청년학교는 청년동맹본부에서

제1회 청년동맹초급단체



